



농수산물 수출

Zoom In 102호

I

각양각색 '대한민국 우수 장미' 한자리에



II

국산 배 미국 수출을 위한 현지검역 요건 개선 협상 타결



III

'22년 국산 배 대만 수출을 위한 대만 검역관 현지조사 실시



농수산물 수출 Zoom In 102호 2022. 10. 4(화)

‘22.9.30까지 농수산물 수출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한 91.0억\$

부류별

신선	가공	수산
  0.9% 1,120.0백만불	  8.5% 5,541.2백만불	  24.9% 2,440.1백만불
+ 닭고기, 배, 고추, 포도 - 인삼류, 김치, 파프리카, 딸기	+ 면류, 과자류, 음료, 주류 - 켈런, 인스탄트면	+ 김, 참치, 명태, 대구, 연어, 굴 - 어묵, 오징어, 전갱이

국가별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미국 연초 수입량 확대에 따른 하반기 재고관리, 소비위축 영향으로 증가세 둔화 1,260.6백만불(4.4%↑)	 김치(1.8%), 배(42.0%) 음료(20.5%), 라면(15.2%)  버섯(△16.2%), 닭고기(△7.9%) 소스류(△2.8%),
  중국 봉쇄 해제에 따른 경제회복과 중국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에 따라 증가세	 명태(239.9%), 라면(27.4%), 조제분유(4.7%)  인삼(△18.7%), 밀(△4.2%)
  신남방 (ASEAN + 인도) 위드코로나 시행에 따라 관광 재개, 일상 소비 회복되면서 신선, 가공, 수산 증가세 지속 1,911.4백만불(13.8%↑)	 참치(35.7%), 음료(23.9%) 닭고기(105.0%), 인삼(52.3%),  딸기(△6.2%), 리큐르(△20.4%)
  일본 가격경쟁력 약화되어 신선 감소세 지속되고 있으나 가공 전체 증가세 견인 1,665.6백만불(10.4%↑)	 인삼(12.0%), 연초류(35.2%) 과자류(33.8%), 김(8.0%),  파프리카(△8.9%), 김치(△24.7%) 참치(△6.8%), 라면(△2.2%)
  EU + 영국 물류난 가중되면서 전체 증가세 둔화 585.4백만불(16.5%↑)	 김치(4.2%), 과실류(7.1%) 라면(16.5%), 참치(21.3%)  버섯류(△22.2%), 김(△10.1%)

☆  : 15%이상 /  : 5~15% /  : 0~5% /  : 0~△5% /  : △5~△15% /  : △15%이하

품목별 이슈

* 실적 : '22.1.1 ~ 9.30

□ 인삼

- (중국 58.0, △18.7) 상반기 봉쇄여파 및 기호품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감소세
- (베트남 30.8, 72.5 ↑) 합리적인 가격과 섭취의 편의성을 높인 간편 소비제품 인기
- (미국 24.3, △5.5) 가격 접근성을 높인 가공품 위주로 물량 증가세

179.2백만불 (△1.7%)

주요 수출국 : 중국(58.0백만불, △18.7%), 베트남(30.8, 72.5%), 일본(24.9, 12.0%), 미국(24.3, △5.5%), 대만(15.5, 18.0%), 홍콩(10.3, △39.7%)

□ 장류

- (미국 19.8, △4.3) 재고 누적으로 수입 물량 조절하면서 감소세
- (중국 9.7, △16.2)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봉쇄가 반복되면서 통관·물류 애로 및 소비·판매 감소
- (필리핀 5.3, 36.6 ↑) 성수기 소비 활성화 및 B2B 수요 증가로 인한 대용량 제품 중심 수출 증가

74.9백만불 (△1.8%)

주요 수출국 : 미국(19.8, △4.3%), 중국(9.7, △16.2%), 일본(5.7, △0.7%), 필리핀(5.3, 36.6%), 캐나다(4.4, 30.5%), 베트남(3.5, 33.3%)

□ 파프리카

- (일본 56.8, △8.9) 일기 불순으로 인한 상품성 악화, 출하물량 부족, 국내 출하 선호현상 등으로 수출물량 부족하여 현지 판매가격 상승하면서 수출 감소세

57.0백만불(△8.9%)

주요 수출국 : 일본(56.8, △8.9%)

□ 김

- (미국 124.8, 14.5 ↑) 조미김, 스낵김, 김부각 등 다양한 맛의 스낵용 리테일 김제품 인기
- (일본 96.4, 8.0 ↑) 코로나 이후 집에서 즐기는 안주, 간식 등 가정용 B2C 조미김 수요 증가로 수출 증가
- (중국 78.7, △26.2) 상하이 봉쇄 해제되었으나 외부활동 제약 및 소비심리 둔화로 감소세

520.8백만불(2.7% ↑)

주요 수출국 : 미국(119.8, 25.9%), 일본(87.9, 7.2%), 중국(70.0, △26.7%), 태국(29.0, 17.1%), 러시아(24.5, △15.4%), 대만(22.4, 22.3%)

☆ 자세한 동향 관련 내용은 aT kati(www.kati.net) > 수출 동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수산물 수출 Zoom In>은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aT 수출기획부 061-931-0817,8)

농진청 이슈



각양각색 '대한민국 우수 장미' 한자리에

농촌진흥청은 국내 육성 장미 우량 계통과 품종의 우수성을 알리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장미 중앙·지방 연구협의체와 공동으로 서울 양재 화훼공판장(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사업센터)에서 평가회를 개최했다. 장미 중앙·지방 연구협의체에서는 해마다 10여 개의 우수한 장미 품종을 육성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화이트뷰티'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2016년 개발한 흰색 대형 장미로, 꽃잎 수가 약 80~100장으로 많고 절화 길이(절화장)가 70~90cm로 큰 편이다. 국내 재배 환경에서도 대형화로 잘 자란다. '보보스'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이 2016년 개발한 진분홍색 중형 장미다. 여름철에도 안정적인 꽃색을 보이며, 수송할 때도 상처가 덜 나고 흰가루병 발생이 적어 농가에서 생산, 출하하기가 쉽다.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이 2020년 개발한 '디그니티'와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이 2022년 개발한 '아모르젠'도 각각 꽃송이가 크고(디그니티) 가시가 적은(아모르젠) 특징을 지녀 최근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육성한 '연모'(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2021년)와 기존에 개발한 '캐롤라인'(경기도농업기술원, 2020년), '피치팡팡'(전라북도농업기술원 2020년), '카르페디엠'(경상남도농업기술원 2019년), '그린필'(충청북도농업기술원, 2009년) 등 모양과 색이 다양한 국산 장미도 선보였다.

절화 장미 품종의 국산화율은 2007년 4.4%에서 2015년 28.8%, 지난해(2021년)에는 31.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해외 품종 사용료(로열티)는 지속해서 줄어 2007년 74.8억 원에서 2015년 28.4억 원, 지난해에는 19.8억 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20억 원 밑으로 떨어졌다.



대형 백색 스탠다드
'화이트뷰티'



중형 진분홍색 스탠다드
'보보스'



대형 분홍색 스프레이 스탠다드
'디그니티'



연분홍색 스프레이
'아모르젠'

공동 간척농지 수출작물재배 등 활용방안 모색 학술대회 개최

농촌진흥청은 간척 농지를 이용한 식량자급률 향상을 논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간척 농지 활용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대회(심포지엄)'를 전북 전주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간척지농업연구회, 간척지영농협의체, 새만금연구개발협의체와 유관 기관, 간척지 분야 전문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내 간척 농지에 수입 대체 및 수출 촉진 작물 재배를 확대해 농업인의 소득을 늘리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국내 간척지 농업 발전 정책과 간척 농지 활용 농업연구 계획을 비롯해 학계, 산업계 현황을 공유하고, 일본의 사례를 통해 국제동향을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주제발표는 5개 분야 △간척지 농업 발전 정책(농림축산식품부) △간척 농지 활용 농업연구 계획(농촌진흥청 간척지농업연구팀) △일본의 간척 농지 활용 현황과 미래(히로사키대 강동진 교수) △디지털 기술적용 간척지 농업환경 관리(전남대 최우정 교수) △고효 스마트팜 혁신 벨리 개발현황과 계획(농어촌공사 한재욱 단장)으로 나눠 진행됐다.

☆ 농진청 이슈 문의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063-238-0673

국산 배 미국 수출을 위한 현지검역 요건 개선 협상 타결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최근 국산 배의 미국 수출을 위한 현지검역 요건 개선 협상을 최종 타결하였다. 그 동안 국산 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검역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현지검역을 실시하고 합격한 배만이 미국으로 수출되었으나 이번 협상 타결로 한국 검역관이 단독으로 검역한 배도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검역본부는 이번 검역요건 협상 타결로 기존 수출 농가들은 선택해서 수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배 생산 농가들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하였다.

'22년 국산 배 대만 수출을 위한 대만검역관 현지조사 실시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22.9.25~10.1 국산 배 대만 수출을 위한 대만 검역관의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만동식물방역검역국(BAPHIQ)은 그동안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현지 조사를 우리 측에 위임하여 왔으나, 최근 한-대만의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대만 검역관을 파견하여 국산 배의 양국 검역요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로 한 것이다. 검역본부는 대만검역관의 현지조사 통해 배 수출단지들이 양국이 합의한 검역요건을 잘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올해 신규로 등록한 선과장도 빠른 시일내에 수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대만 측에 전달하였다.

☆ 외국의 농산물 수출검역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 수출식물검역정보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식물검역 이슈는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054-912-0623)